

『더블린 사람들』의 가톨릭교/교리와 “이름 없는” 소년과 여성들의 성적 불안

박 윤 기

I

조이스(James Joyce)는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서 당시 영국과 가톨릭 교회라는 지배세력으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소년들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인다. 20세기 초 모든 아일랜드 사람들의 삶은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조이스의 관심은 당시 “피억압자에 의한 또 다른 피억압자”(Lawrence 245)인 아일랜드의 소년과 여성들이 가톨릭교 교리에 의한 희생자로서 그들의 이중적인 구속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작품 중 특히 “『더블린 사람들』에서 그는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의 권위를 로마 가톨릭교회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McCarthy 86) 있는데, 이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을 비롯한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되풀이 되는 개념이다.

조이스가 작가로서 활동할 무렵인 “20세기 초 아일랜드는 정신병동, 선술집, 가톨릭성당이 번성하고 있었는데”(Young 6),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무기력해진 모습이다. 그나마 남성들

이 식민지인으로서의 패배의식을 가부장적 언어, 술주정, 그리고 육체적 폭력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면, 그로 인한 감정의 해악과 피해는 고스란히 소년과 여성들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로마 가톨릭교 교리는 아일랜드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마음과 육체적인 구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중 특히 “성적인 측면에서의 정신적인 구속은 아일랜드 가톨릭교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작용한 예이다”(Mullin 19).

그는 이 같은 현상을 『더블린 사람들』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작품 전체의 포괄적 주제인 “마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소년들의 경우에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앓고 있는 공통된 증세가 있는데, 이는 성적 정체성이란 측면에서의 불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성적 정체성의 불안이란 작가가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아일랜드 사회에 만연된 종교적 교리로 인한 성적 억압과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탈출과 도피를 강요하는 육체적인 욕망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에서 생겨난 감정을 말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육체적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을 때면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욕망을 해소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일례로 이는 “여성의 몸에서 나는 냄새나 혹은 신체의 일부에서 성적만족을 갈구하는 페티시즘의 성향”(Strathern 21)에 집착하는 것인데, 이러한 습성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자연스런 성적욕구와 정상적인 성행위를 잇게 되며 때때로 그런 욕망과 행동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조이스는 이 같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성적불안에 쫓기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을 자신들도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에 의한 피억압자의 신분이면서도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부장적인 특권을 여전히 행사하려드는 당시 대다수 아일랜드의 남성들의 그것과 연계시켜 표현하고 있다. 당시 아일랜드 사회의 분위기에서 소년들의 경우 육체적인 욕망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불안 증세를 보이며, 그에 못지않게 가부장적 지배권력 하에서 폭력의 희생자라 할 수 있는 여성들의 경우도 성적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불안이 어른이 된 이후까지 연결되거나, 궁극적으로는 그들 모두의 성적인 마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II

조이스는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 인들 중에서 아이들과 여성들의 상대적으로 가혹한 상황에 주목하고, 그들의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가톨릭교의 폐해를 강조한다. “『더블린 사람들』에서는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가톨릭이 아일랜드를 부패시키는 두 가지 원인인데”(Patrick 58), 대략 선별해도 「어떤 어머니」(“A Mother”)의 키어니 부인(Mrs Kearney), 「에블린」(“Eveline”)의 에블린, 그리고 「애러비」(“Araby”)의 망간의 누나(Mangan’s sister) 등이 제국주의의 희생자이자 종교적 구속에 얽매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하숙집」(“The Boarding House”)의 무니 부인(Mrs. Mooney)은 가정의 책무에 얽매여 있는 인물이며, 「진흙」(“Clay”)의 마리아(Maria)는 그 이름이 함축하듯 가정과 종교에 구속된 운명이다.

가정과 종교에 의해 희생되는 또 다른 인물은 「자매들」(“The Sisters”)의 내니(Nannie)와 일라이저(Eliza)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희생은 결국 헌신의 대상이었던 플린 신부(Father Flynn)의 마비된 모습이 상징하듯 아무런 결실도 내지 못한다. 그는 종교적 구속에 얽매인 인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직 책에 있는 규칙과 도그마, 제의와 성례를 통해서만 이해하려 하고,” 신에 대한 믿음을 “경험에 의한 이해가 아닌 전화번호부 만큼 두꺼운 교리서처럼 물질적 등가물에만 고집하는 성직매자”(노리스 79)의 모습이다. 그는 죽음 후에도 두 자매들에게 가부장적 권위를 여전히 유지하는데, 이는 아일랜드의 마비된 모습이자 가톨릭교의 지배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내니와 일라이저 두 자매가 헌신적으로 그를 공부시킨 것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성을 위한 그들의 헌신은 결국 무위로 끝나게 되며”(Fairhall 83), “남성지배라는 식민지 경제하에서 주변적인 위치”(Woods 294)를 벗어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자매들」의 제목이 “여성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도”를 지닌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그것은 “신부와 소년의 상징적인 관계”(Brandabur 42)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죽은 사람들」(“The Dead”)의 모칸(Morkan) 자매와 더불어 무기력한 아일랜드나 죽은 전통을 고집하는 아일랜드의 가톨릭교에 대한 상징”(Ellmann 15)으로서의 의미가 오히려 더 강하다.

더욱이 “sisters”의 “수녀”라는 함축된 의미(Tindall 15)를 고려할 때,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이들의 운명은 황무지에 비견되는 불모의 상태에 다름 아니다. 흔히 작품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 같은 문장인 “오빠는 뭔가 잘못되었다”(D 10)는 일라이자(Eliza)의 말은, “작품의 마지막에야 언급되어 더 이상의 의미추론이 불가능하며”(Tindall 13), 더욱이 통찰력에서 나온 말도 아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에피파니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며, 설령 그러한 순간이 있다하더라도 에피파니를 경험하는 인식의 주체가 불분명하다”(Dettmar 81). 그 결과 풀린 신부의 마지막에 대해 말하는 그녀의 평가는 그저 “공허한 잡담으로 끝이 난다”(Henke 15)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이 가부장제에 의한 희생자라는 것이며, 언제까지나 그들은 의미(언어)/생성(평생 독신의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주변적인 위치에 머문다는 것이다.

「자매들」에서의 “이름 없는 소년” 역시 가부장적 권위의 희생자로 볼 수 있다. 그는 어른들의 권위를 축으로 해서 항상 그 주위를 맴돌 뿐이며, 그들이 주도하는 불분명한 언어/의미로 인해 혼란에 빠지기 일쑤이다. 그는 “애들은 또래끼리 놀아야지”(D 3)라는 코터 씨(Mr Cotter)의 말로 인해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소외되는 꼴이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도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코터 씨의 “생략되어 난해하고, 단절과 이어짐이 반복되는”(Kershner 26), 이른바 “빨대 만 문장”(D 3)과 “형상 없는 언어의 어휘나 구조, 그리고 알 수 없는 개념으로 권위적인 언어가 지나는 혼란을 경험하고”(Kershner 25), “애들에게는 해로워”(D 3)라는 말을 듣고는 차별화된 자신을 발견한다.

이처럼 소년에 대한 코터 씨의 차별화는 「애러비」에서 “공부만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D 26)라는 속담을 통해 다시 한 번 반복된다. 실제로 『더블린 사람들』의 이른바 “유년기” 작품에서는 “소년들과의 놀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쓸데없이 “어른들의 관심사”에 끼여들지 말라는 배타적인 차별화이다. 더욱이 그것은 “마비로 인한 치명적인 영향을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가고픈 소년의 욕망”(D 3)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권위적 폭력이다. 하지만 이에 소년이 보여주는 항거는 겨우 “화난 것을 숨기고 오토밀 죽을 입 안 가득 채워 넣는다”(D 3)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매들」에서는 “그런 사람과 너무 잘 알고 지내게 두지 않겠다”(D 2)

는 코터 씨의 말이 성적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소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이스는 이 작품을 『아일랜드 농가』(*The Irish Homestead*)에 처음 선보인 후 10년이 지난 1914년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하는데, 이는 “플린 신부가 매독과 같은 진행성 마비환자라는 점”(헤이든 284)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조이스는 이 후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도 성적 억압에서 비롯된 왜곡된 성욕의 발산물인 “더러운 접맥이 흐르는”(144) 매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처럼 플린 신부의 “paralysis”는 “아일랜드의 지적, 정서적, 물리적인 움직임의 정체”(Seidel 44)이자 “신체상의 장애”(Bulson 36)이고 그보다 “훨씬 더 음흉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Hodgart 46) 매독과 같은 성병을 뜻한다.

「자매들」의 또 다른 핵심어인 “simony”가 사랑을 거래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Seidel 48)인 것을 감안하면, 신부의 마비를 성병으로 해석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결국 육체적/정신적 마비에 시달리는 신부가 소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그와 긴밀한 사이가 된다”(D 2)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제자에게 전가하려는 “성도착의 성직매매”(Seidel 48)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꿈속에서 “무언가를 고백하려는” 신부를 보며 “그가 안고 있는 성직매매의 죄를 사해주는”(D 3) 태도라든가 그가 죽자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D 4) 소년의 심리는 “gnomon”과 같은 괴상한 형태와 대응이 되는 일종의 성적불안이자 그것으로부터의 해소라 할 수 있다.

「우연한 만남」(“An Encounter”)에서의 “이름 없는 소년”은 보다 직접적으로 성적 불안감을 경험한다. 청소년기의 문턱에 있는 그는 육체적 욕망충족의 기대감을 갖고 “피전하우스”(Pigeon House)로 길을 떠난다(Henke 19). 하지만 그는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며, 리피(Liffey)강 넘어있는 링스엔드(Ringsend) 주변을 방황하다 “괴상”한 노인을 만난다. 그런데 이 때 “괴상하다”는 의미의 “queer”(18)는 당시엔 “무언가 수상쩍은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는데, 이는 오늘날 동성애(homosexual)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자매들」에서도 플린 신부의 속성이 “queer”(D 1)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조이스는 이들 사이의 동성애적 속성을 공유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링스엔드 주변에서 소년들이 만난 그 노인은 어린 소녀들의 “예쁘고 하얀 손”과 “아름답고 부드러운 머리칼”(D 18)에 강박적인 애착을 보이지만, 성적인 불능 상태에서 소년들을 보며 동성애적 속성으로 왜곡된 욕망을 충족하고자 한다. 그

모습에 소년들은 그 동안 기대해왔던 욕망이 좌절된다. 그런데 이는 그들의 욕망 충족의 목적지가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 집”의 의미인 것을 감안하면, 실령 그곳에 도달하더라도 애초의 기대가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예견된다. 링스앤드는 조이스가 그의 아내인 골웨이 출신의 호텔 여급이었던 노라 바나클(Nora Barnacle)을 만나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써 성적욕망을 기대하는 장소로서의 상징성은 충분하다.

소녀의 몸에서 페티시즘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소년들의 모습을 보며 수음을 하는 노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욕망이 아닌 일종의 왜곡된 마비로 볼 수 있고”(Sexton 12), 이는 이성에 대한 욕망의 생성과 그것의 분출이 동성애라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이 입고 있는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검은 색 옷”(D 16)은 “빛바랜 초록색”(D 4) 옷을 입고 있는 플린 신부를 떠올리는데, 이러한 공통점은 앞서 소년에 대한 신부의 동성애적 성향을 확신케 한다. 이렇게 볼 때 「자매들」과 「우연한 만남」에서 두 노인들이 보여주는 왜곡된 성적취향은 근본적으로 가톨릭교와 그 교리에 얽매인 사람들의 마비와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자매들」과 「우연한 만남」에서 어른들의 왜곡된 성의식이 이른바 “이름 없는 소년들”의 성적불안을 가중시킨다면, 「애러비」의 소년은 여성에 대한 육체적인 욕망과 그것의 두려움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성직자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당시 더블린 사회에서 가톨릭 교리에 사로잡힌 남성들은 여성을 육체가 배제된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이상적인 대상, 즉 성모와 같은 존재로 간주해야 할 압박감에 사로잡힌다. 특히 「하숙집」에서 밥 도란(Bob Doran)의 결혼을 유도하는 신부나, 혹은 몰리(Molly)에게 “운하 뚝에서” 그녀의 몸을 만진 사실을 털어 놓도록 유도하는 코리건(Corrigan) 신부와 같은 성직자들은 사람들의 성생활을 억압하는 감시자들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교해성사는 도덕적 설교를 강요하는 도구가 된다(U 18.107-8). 이렇듯 조이스는 가톨릭교를 아일랜드인들의 성생활을 통제하는 억압적인 요소로서 간주하고 있는데, 그가 의미하는 가톨릭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도덕성을 강요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성직자와 교해소처럼 정신적인 영역에 한정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보다 좀 더 세속적이고 공적인 것으로 거리의 순찰이나 법률적 기소처럼 보다 더 적극적인 영역이다”(Mullin 20).

이 같은 분위기에서 성장한 『더블린 사람들』의 소년은 일견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라 할 수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섹스와 기독교 사이, 여성과 성모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듀런트 142)에 시달리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들은 종교적 교리에 의해 이른바 “뜻하지 않게 발기하는”(Beauvoir 150) “남근의 도발적 움직임을 억제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거세를 강요받고 있다”(Henke 71). 청년기의 스티븐은 자신의 성적인 발달이 교회의 대리인들로 인해 끊임없이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클롱고우즈 학교에서 신부선생님들은 “못할 짓”(smuggling: 아일랜드 속어로 동성연애를 뜻함. P 42)을 한 죄를 물어 학생들에게 매질이라는 처벌을 내린다. 또한 스티븐에게는 “그렇게 추잡한 습관, 그렇게 불순한 습관”(P 123)에 대해 아널(Arnall) 신부는 지옥에 관한 설교로서 그의 성적인 호기심을 통제하려 든다. 이에 스티븐은 자신의 “불순한 죄”(P 144)를 참회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는 가톨릭교 교리가 그의 이성애적 상상력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Mullin 83).

조이스는 가톨릭교가 지극히 정상적인 성적인 상상력까지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이러한 예를 고해성사를 강요하는 신부들의 모습에서 찾고 있다. 『율리시즈』에서 불륜의 목소리를 통해 “고해성사 (...) 회개. 저를 벌하여 주소서. 그들이 손에 움켜진 거대한 무기. 의사나 변호사보다 더 강하지”(U 5.425-27)라고 말할 때, “조이스는 고해라는 가톨릭성사를 성과학이나 프로이트 학설에서 말하는 정신분석처럼 개인의 성적경험이나 성적취향에 관한 현대적인 담화로 인식한다”(Nolan 160). 19세기 이래로 이른바 “가톨릭소설”의 전형적인 패턴을 갖춘 『젊은 예술가의 초상』 역시 가톨릭의 죄의식과 고해성사에 많은 비중이 주어진다. 이 작품에서 조이스는 가톨릭에 관해 언급한 소설장르에 몇 가지 자기만의 색깔을 투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성에 관한 감각적인 경험과 종교적 고려와의 관계, 즉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성적욕구와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종교적 죄의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Forster 110). 하지만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종교적 교리를 신뢰할 수 없는 스티븐에게 “성 처녀의 이미지가 더 이상 생활에 지속적인 부분이 되지 않는다”(Fairhall 156) 반면, 『더블린 사람들』의 소년에게 여성은 성스러운 존재로서의 무게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애러비』의 소년은 자기 앞에 서있는 여성을 보고 그녀가 성스러운 존재로서가 아닌 육체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지자 당혹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가 불안감을 느낀 이유로는 의당 여성은 육체적 욕구의 대상이 아닌 가톨릭교의 성모와 같은 이상적인 대상으로 인식해야할 분위기에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는 망간의 누나를 보고 느낀 성적욕구를 불경한 것으로 단정짓고 종교적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처음 망간의 누나를 훑쳐보았을 때 소년은 그녀의 육체적인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데, 종교교리에 얽매인 그는 그녀를 실체가 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단지 “갈색의 형상”(D 22)이나 혹은 “신비에 둘러싸인 여신”(Henke 20)으로 제한시켜 본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새하얀 목덜미의 곡선”과 “보일까 말까한 속치마의 흰 밑단”(D 24)을 보자 더 이상의 억제 불가능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그는 성적욕망에 압도되었다는 당혹스러움에 불안과 죄의식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그는 “내 몸은 하프와 같았고, 그녀의 말과 몸짓은 하프의 줄을 튕기는 손가락과도 같았다”(D 23)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으로서의 전도된 성을 지향하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는 그가 능동적인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대상으로서 가톨릭의 죄의식에서 벗어난 욕망충족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애러비」의 소년이 보여주는 이러한 성전환의 전략은 『율리시스』(Ulysses)의 「키르케」(“Circe”)에서 블롬/폴디(Poldy)는 폴라(Pola)로, 포주인 벨라(Bella)는 벨로(Bello)로서의 전환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렇듯 변칙적 욕구충족의 전략으로서 전도된 성전환은 조이스의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어린 스티븐이 이웃집 소녀에게 연정을 느낄 때, 그는 독수리로 상징되는 처벌자 아버지를 등장시킨 댄티(Dante) 속모와 어머니로부터 사과하지 않으면 “눈알을 빨 것”(8)이라는 협박을 받는다. 이 때 시각(visus)과 힘(vis)은 어원이 같고 힘은 남근과 연계되기 때문에 눈알을 빨다는 것은 상징적 거세행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그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톨릭교가 주는 장벽을 상기시킨다. 그 중 하나는 그녀는 부모가 다르며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종교적 장벽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욕망을 자극한 아이린(Eileen)의 흰 손이 가톨릭의 성모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성관계의 장벽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톨릭교도들에게 성모는 신성한 존재로서 그녀에게 이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은 불경한 것이라는 종교적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름이 명시되지 않는 “망간의 누나”라는 표현에서의 “sister”와 「자매들」의 제목인 “sisters”는 성적 접근이 불허되는 “수녀”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결국 「애러

비』의 소년은 “더블린의 소년들이 성모의 이미지를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망간의 누나를 숭배하고 있는 셈”(Patrick 56)이고, 또한 숭배해야 할 의무감에 구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망간의 누나가 “수녀원의 피정에 참가”(D 24)하는 것을 보아도, 소년에게 그녀는 가톨릭의 신성한 여성으로 대상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자매들」에서 두 자매가 평생 독신으로 늙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더블린 사람들』에서의 “sister/s”는 생산성의 부재를 뜻하기도 한다. 결혼까지도 유보하면서 오빠를 도와준 그들의 열망이 결국은 하느님에 대한 헌신이었는데, 플린 신부의 어이없는 죽음과 그들에게 남겨진 쓸쓸한 인생을 고려하면 아일랜드 전역을 지배하는 가톨릭교의 비생산적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의 교리는 아일랜드인들의 성적 상상력을 억압시키는 데에는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한다. 「애러비」의 소년은 “은팔찌를 빙빙 돌리는” 망간의 누나가 지닌 매혹적인 모습에 육체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바늘과 같은 가랑비 소리”는 결국 그의 성적인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녀의 이름을 주술처럼 반복하는 행위에서 육체적 욕망에 따른 그의 성적인 불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행위가 “죽은 신부의 방”(D 23)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종교적 억압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그의 육체적 욕망을 잠재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체적 욕망으로 촉발된 소년의 불안감은 바자에서 점원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극대화된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을 성스러운 사랑의 수호자라 여겼고, 바자에 갈 때는 “적의 무리들 사이에서” 성스러운 사랑의 상징인 “성배”를 지키는”(D 23) 기사로 생각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녀의 매혹적인 “흰 목덜미와 그 위에 흘러내린 머리칼”(D 24)을 보면서 그녀를 하나의 “형상”이나 “이미지”(D 22, 24)로 보려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며 이상적인 여인을 보호하는 성스러운 기사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키려고 한 “chalice”가 가톨릭이나 성배(Grail)라는 신성한 뜻 외에, 남성 혹은 여성의 “phallus”라는 세속적인 의미가 있다”(Dettmar 78)는 점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었다. 즉 그는 망간의 누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 근저에는 그녀에 대한 육체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점원들의 대화를 듣고 자신의 사랑이 숭고함과는 거리가 먼 저급한 성적본능에서 촉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실제로 점원들이 나

누는 대화 중 첫 마디인 “O”는 여성의 성적인 기관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율리시즈』의 「나우시카」(“Nausicaa”) 장에서 블룸(Bloom)이 거티(Gerty)를 보고 수음을 하는 장면에서 반복되는 감탄음인 “O”와 동일한 상징이 된다. 그 결과 그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이 기실 “허영에 몰리고 또 그 허영의 조롱을 받는 짐승”(D 8)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각성에 수치와 분노를 동시에 느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여성을 성모와 같이 이상화된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감과 성적욕망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감정의 괴리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애러비」의 소년처럼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정서적인 불안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는다. 「가슴 아픈 사건」(“A Painful Case”)에서 제임스 더피(James Duffy)는 육체적인 욕구를 완전히 부정한 채 “이상적인 사랑/여인”에게서 위안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미혼인 그는 “타인과의 참된 교류가 단절된 인물”(Tindall 31)로 우연히 만난 시니코 부인(Mrs Sinico)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이상적인 사랑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에게 그녀는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닌 성스러운 여성이자 “어머니와 같은 여성이다”(Henke 35). 실제로 그녀가 성모처럼 모든 것을 감싸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을 때 제임스 더피는 한없는 편안함을 느낀다. 그에게 “그녀와의 교제는 고향을 잃은 외국산 화초의 뿌리를 감싸주는 따스한 흙과 같으며, (...) 그녀와의 화합은 마음을 고양시켜 주는”(D 107) 생동감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감정의 흥분을 느끼고 육체적 접촉을 시도하자, 그는 마치 접촉해서는 안 될 “성모/어머니”의 신체에 닿았다는 불경/근친상간적인 당혹감에 휩싸인다.

그는 이제까지 시니코 부인을 자신의 “고해성사를 들어주는 신부”(106)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와의 가상적인 성교에서 자신의 파멸을 보게 된다”(Tucker 94). 그는 그녀가 자살한 후 그녀의 행위를 “악”(111)으로 단정하는데, 악을 “사람들에게 나쁜 결과를 낳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다수가 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적인 생각과 행동을 뜻하는 것”(도킨스 442)으로 해석한다면, 성적의식에 대한 더피의 행동과 태도는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당시의 종교적인 의식이 다분히 함축되어 있다. 그 결과 “남성과 남성 사이의 사랑은 성교가 있어야 함으로 불가능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우정은 성교가 있어야 함으로 불가능하다”(D 108)고 말할 때, 그는 “유년기” 작품에서의 소년들이 느끼

는 성에 대한 불안감, 즉 동성애/이성애에 대한 두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블린 사람들』에서 가톨릭교는 남성들 못지않게 여성들의 삶과 일상을 지배하는 신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죽은 사람들」에서 두 자매 중 줄리아(Julia)는 프란시스코 교단의 교회인 “아담과 이브”(Adam and Eve’s, 176)의 주역 소프라노였고, 케이트(Kate) 또한 교회와 관련된 음악교육을 전담했다. 그리고 그들이 키운 여조카인 메리 제인(Mary Jane)은 해딩톤로에 있는 성 메리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더블린 사람들』에서 가톨릭교는 소년들 못지않게 여성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자매들」의 두 자매가 오빠를 신부로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 그리고 「애러비」에서 “바자에 가고 싶어”(D 23) 하면서도 피정 때문에 결국 포기하는 것, 머써 부인(Mrs. Mercer)이 국외 선교사들에게 이익금을 보내주기 위해 사용한 우표를 수집하는 일 등등은 아일랜드에서 가톨릭이 일상생활에 얼마만큼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짐작케 하는 예가 된다.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성당을 찾지만 정작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는 「짝패들」(“Counterparts”)의 패링턴 부인(Mrs. Farrington)이나, 남편에 대한 환멸감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사랑을 이른 바 “어린 양”(little lamb, 81)인 아기에게 쏟으며 심지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도의 분신으로까지 생각하는 「구름 한 점」(“A Little Cloud”)에서의 애니(Annie),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서 “성모 마리아를 연상시키는 그레타(Gretta)”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예보다 훨씬 더 종교적 구속에 얽매인 모습들이다(Henke 45).

그 중에서도 「에블린」의 에블린은 가정과 가톨릭교에 구속된 가장 대표적인 여성이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여성들은 전술한 남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교리로 인한 성적인 불안을 경험하는데, 그들의 불안 증세는 가정에 대한 의무감으로 인해 더욱 가중된다. 따라서 앞서 링스엔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소년들의 경우는 최소한 탈출을 꿈꾸고 또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정에 대한 의무감으로 인해 그러한 시도조차 원천에서 무산된다. 이를 통해 본다면, 아일랜드에서 소년들은 사춘기적 욕망과 왜곡된 종교적 교리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는 그것에다 부가된 짐으로 인해 훨씬 더 무거운 혼란을 경험한다.

이에 대한 실례로 에블린은 자신이 “존경을 받을 것”(D 30)으로 기대되는 “부

에노스아이레스”로의 탈출을 희망한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의지는 버려둔 채 “진정한 의무”(D 33)가 무엇인지를 하느님께 간구한다. 이때의 그녀는 수태고지를 듣고 “하느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모마리아의 순종과 복종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는 개인적으로는 종교에 대한 그녀의 잘못된 이해로 볼 수 있고, 거시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아일랜드 가톨릭교에 대한 회의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거기 에다 그녀는 “어머니가 되고 또 그 어머니가 겪었던 삶을 반복해야 한다는 가정에 대한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다”(Gallop 113). 그녀가 살고 있는 집/가정은 “먼지를 털어내도”(D 29) 끊임없이 쌓인다는 상징에서도 알 수 있듯 그녀가 앞으로의 행복을 기대할만한 장소는 더 이상 아니다. 때문에 “그녀는 앞서 나온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와 가정에 의해 구속되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인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Werner 37).

더욱이 그녀는 집/가정에서 산사나무 지팡이로 상징이 되는 가부장과 결국 어린 시절부터 성적욕구에 제약을 받는 대다수의 아일랜드 남성들처럼 왜곡된 욕구를 지닌 아버지로부터의 성적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더블린 사람들』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하다. 여기서 아버지 힐(Hill)은 「두 건달들」(“Two Gallants”)의 콜리(Corley)와 레너헌(Lenehan)에서 반복되고 있다. 콜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하녀/여성들의 수를 자랑하며, 레너헌 역시 여성을 먹는 음식처럼 필요할 때 먹는/즐기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친구의 성적착취과정을 상상하며 관음적인 쾌감을 얻는 왜곡된 성적취향의 인물들이다. 「구름 한 점」에서의 이그네이셔스 갤러허(Ignatius Gallaher) 역시 일부일처제를 따분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라 단정하고, 여성을 단지 “맛” 볼 수 있는 음식이나 사창가 등에서 쉽게 취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한다. 그는 가톨릭 식으로 성호를 긋는 시늉을 하면서 하느님의 신자처럼 행세하지만 파리에서는 “매춘부들과 놀아났던”(D 72) 기억에 취해 있는 전형적인 속물이다.

이처럼 올바른 성적생활이 제한된 분위기에서 성장한 에블린은 성에 대해 강박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녀는 프랭크(Frank)와 함께 도피했을 때 과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의심하며, 그가 자기를 “리버풀이나 런던 등지로 데리고 가서 강간 후 버릴 수 있다”(Hodgart 46)는 의구심에 불안해한다. 그 결과 그녀는 성관계가 즐거울 수 있고, 그녀에게 행복한 가정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환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녀는 처녀성이 상실되는 순간 자신도 어머니처럼 불행한 삶을 되풀이 할 것 이라는 불안한 감정에 휩싸인다. 따라서 더블린의 남성들이 아일랜드의 가톨릭교에 의한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해 왜곡된 성적편견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의식이 어른이 될 때까지 지속되어 스스로 성적착취나 폭력의 가해자/피해자가 된다고 한다면, 에블린이 대표하듯 아일랜드의 여성들은 그러한 다각적인 폭력으로부터 더 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본 논문의 의도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아일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마비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곡된 가톨릭교 교리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적인 측면에서의 불안을 경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인들의 성적인 마비와 그것을 심화시키는 요인에 가톨릭교 교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대다수의 아일랜드 남성들은 영국으로부터의 제국주의적 압력 하에서도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가부장적 성향을 버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종교적인 구속으로 인해 상당부분 왜곡된 성적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아일랜드의 여성들은 가부장적 권력에 희생을 당하면서도 가정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야말로 이중적인 구속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모두는 가톨릭교 교리의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 정신적인 부분에서 큰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성적억압이라는 부분이 더욱 더 그렇다.

이렇듯 아일랜드의 남성이나 여성 모두는 가톨릭교에 의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조이스는 이러한 측면을 그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로 활용하고 있다. 즉 당시 아일랜드에서 가톨릭교의 영향력은 남성들의 경우 그들의 무기력한 식민지 패배의식에서 비롯된 폭력적 행위와 연관되고, 여성들의 경우 이중적 구속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정생활에 대한 의무감과 연관되고 있다.

조이스는 그의 대개의 작품에서 이러한 측면을 조명하고 있는데, 특히 그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이름 없는 소년”들의 성적인 호기심과 욕망에 종교적 억압이 주는 결과를 “마비”라는 현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는 그들만의 단독적인 영향이나 결과는 아니다. 성인 남성들의 경우 플린 신부와 “괴상한 노인”의 경우처럼 종교적 구속이 성불구 내지는 동성애적 속성과 연계되고, 소년들의 경우는 그들의 왜곡된 성적위협 의 희생자로서 이 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의 경우는 반복되는 단어인 “sister/s”(자매/수녀들)의 함축된 의미에서처럼 성은 그들에게 생명력을 배태시키는 기대를 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20세기 초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아일랜드인들의 모습은 여성은 단지 순결한 성 처녀로서의 성모나 혹은 가정에 대한 의무감에 충실한 어머니로서 인식되는 존재이다. 그 결과 성적욕망을 표현하고 구현하는데 있어 남성들은 성에 있어서 도착 증세를 보이며 소년들과 여성들은 불안을 경험한다.

(배재대)

인용문헌

- 노리스, 데이비드. 『조이스』. 이수명 옮김. 파주: 김영사, 2006.
- 도킨스, 리처드. 『만들어진 신』. 이한음 옮김. 파주: 김영사, 2007.
- 듀란트, 월, 에어리얼 듀란트. 『20세기 문학이야기』. 이경수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5.
- 헤이든, 테버러. 『매독』. 이종길 옮김. 고양: 길산, 2004.
- Beauvoir, Simone de. *The Second Sex*. Tr. and ed. H. M. Parshey. 1949; rpt. New York: Bantam, 1952.
- Brown, Richard. *James Joyce and Sexu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Bulson, Eric.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James Joy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Dettmar, Kevin J. H. *The Illicit Joyce of Postmodernism*.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6.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Forster, John Wils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the Irish Nov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Gallop, Jane. *Feminism and Psychoanalysis: The Daughter's Seduction*. London: Macmillan, 1982.
- Halper, Nathan. *Studies in Joyce*. Michigan: UMI Research Press, 1983.
-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London: Routledge, 1990.
- Hodgart, Matthew. *James Joyce: A Student Guide*. London: Routledge, 1978.
-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Joyce, James. *Dubliners*. New York: Penguin, 1992.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Chest G Anderson. The

- Viking Critical Librar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 _____. *Ulysse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Kershner, R. B. *Joyce, Bakhtin, and Popular Literature*.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9.
- Lawrence, Karen. "Joyce and Feminism." *The Cambridge Companion to James Joyce*. Ed. Derek Att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37-58.
- McCarthy, Patrick A. *Ulysses: Portals of Discovery*. Boston: Twayne Publishers, 1990.
- Mullin, Katherine. *James Joyce, Sexuality and Social Pu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Nolan, Emer. *James Joyce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1995.
- Patrick, Coogan Kevin. *Clanging upon the Heart: James Joyce and the Creation of Modern Ireland*. Michigan: A Bell & Howell Company, 1993.
- Seidel, Michael. *James Joyce*.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ing, 2002.
- Sexton, Adam. *On Joyce's Dubliners*. New York: Wiley Publishing, Inc. 2003.
- Strathern, Paul. *James Joyce in 90 Minutes*. Chicago: Ivan R. Dee, 2005.
- Tindall, William Y.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8.
- Tucker, Lindsey. *Stephen and Bloom at Life's Feast: Alimentary Symbolism and the Creative Process in James Joyce's Ulysse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4.
- Werner, Craig Hansen. *Dubliners: A Pluralistic World*. Boston: Twayne Publishers, 1988.
- Woods, C. J. "The General Election of 1892: The Catholic Clergy and the Defeat of th Parnellites." *Ireland Under the Union*. Eds. F. S. L. Lyons & R. A. Hawkins. Oxford: Clarendon, 1980. 289-319.
- Young, Filson. *Ireland at the Crossroads: An Essay in Explanation*. 1903. London: E. Grant Richards, 1907.

Abstract**Catholicism & Sexual Anxiety of “Unnamed Boys” and
Women in *Dubliners***

Yunki Park

James Joyce identifies the British Empire and the Irish Catholic Church as the Irish men's authoritarianism and the spiritual authority in his fiction, particularly in *Dubliners*.

The unnamed boys, sharing the sam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in “The Sisters,” “An Encounter,” and “Araby” in the novel suffer from the same psychological anxieties caused by the regulation of sexuality, the province of the Irish Catholic Church. They are all forced to suppress their adolescent sexual curiosities and natural sexual desire. Young women like Eveline, Maria, and Mangan's sister, virginal yet eager for romance, courtship, and marriage, provoked an epidemic of social purity anxieties. Father Flynn's homosexual desire in “The Sisters” and the old josses' masturbation in “An Encounter” are the kind of paralysis because it is sex that does not result in procreation. Likewise, Old women like Nannie and Eliza in “The Sisters” are the victims by Irish Catholicism because they have no hope to compensate themselves for their faithful Catholic sacrifice.

Irish Catholicism in Joyce's fiction demands that men and women psychologically castrate themselves by consenting to the Catholic mores and Catholic image of Virgin Mary. As a result, almost all the Irish have no choice but to obey Catholicism's inescapable dominance and finally become psychologically paralyzed victims.

■ Key words : Catholicism, authority, anxiety, sexual desire, suppression, paralysis

(가톨릭교/교리, 권위, 불안, 성적욕망, 억압, 마비)

논문 접수: 2008년 5월 20일

논문 심사: 2008년 6월 5일

게재 확정: 2008년 6월 17일